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이슬람교육기관인 뽀산뜨렌 현지조사

장가윤
사범대학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박사과정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 덕분에 1월 18일부터 약 10주에 걸쳐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의 이슬람교육기관인 뽀산뜨렌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 현지 조사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여성교사의 삶을 탐색해봄으로 아체 사회 및 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특징적인 맥락을 지닌 사회 속에서 이슬람 교육을 고수하고 있는 뽀산뜨렌을 연구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교육 및 이슬람 사회의 성질서의 이해를 도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히, 여성교사의 삶을 통해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일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와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장연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허가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아체지역 및 인도양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모이고 관련 논의를 주최하는 공식 연구기관인 ICAIOS (International Center for Aceh and Indian Ocean Studies)의 추천을 받아 연구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장에 있는 동안 연구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자료수집을 진행하는데 UIN Ar-aniry 대학원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1] Syiah Kuala University 에 위치한 ICAIOS



[그림 2] UIN Ar-aniry 대학원

연구 사례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총 7개의 뾰산뜨렌에 방문했으며, 3개의 학교를 집중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 뾰산뜨렌은 전통식, 혼합식, 현대식으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지는데,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3개의 학교는 모두 이슬람 교육과 일반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식 뾰산뜨렌의 형태로 최근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기숙학교였다. 3개의 사례가 되었던 뾰산뜨렌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슬람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있는데 이슬람 과목 교육시간과 일반 과목 교육시간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수업이 진행하고 있다. 뾰산뜨렌의 교육과정 및 하루 일정에 대한 결정권은 주로 학교 교장에게 있으며, 주로 오전에는 일반 과목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저녁시간에는 이슬람 관련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활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수업 및 전반적인 생활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성별의 학생 관리에 대한 권한도 같은 성별의 교사에게 제한된다.



여성교사들과 ‘여성’ 및 ‘교사’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으로, 주요개념에 대한 개인의 생각 및 경험을 나누고 있다.

[그림 3] 여성교사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수집은 주로 학교별 주요 문서, 현장의 사진, 교육과정 및 주요 행정자료를 비롯한 참여관찰, 1:1 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주 연구 참여자였던 여성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리더 및 남성교사와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식사, 수업, 기타 활동 등 현장의 교사 및 학생들과 학교일과를 함께 보내며 라포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여성교사의 일과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슬람 관련 과목 수업에서 진행한 간단한 그리기 활동을 통해 부산뜨렌 학생들에 대한 이해 및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했다.

[그림 4] 여학생들과 진행한 활동